

11 천국 시민으로 영화로운 몸 입기를 고대하는 그리스도인

성경말씀: 빌3:17-21

빌립 교회의 문제, 해결책: 주님을 본받으라(2:5-11). 디모데(19-24), 에비브로디로(25-30)를 본받으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3장, 요약(3:17)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전기, 과거(4-11), 현재(12-16), 미래(17-21)

과거는 회계사, 현재는 운동선수, 미래는 자기의 본향을 떠나 외딴 곳에 사는 외국인(20)

과거 현재를 설명한 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한다(17).

그런 자들을 주목하라고 말한다(17).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심각한 이야기를 먼저 말한다.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 >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사람들이 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기쁨이 충만히 담긴 서신, 그런데 바울은 이 안에서 지기가 눈물을 펄펄 흘린 일이 있다고 말한다(18). 무슨 이유일까? 그는 단일한 목표, 환경에 개의치 않음

그런 것들에 의해 기쁨이 상쇄되지 않는다. 그의 슬픔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로 인해 울고 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한다(18),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인가? 있다.

아마도 그들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빌3:2), 유대주의자들

1. 이들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외부인이 아니다.

2.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대적한다.

유대주의자들: 할례, 율법, 믿음 + 행위(천주교), 직통 계시, 금이빨, 뒤로 쓰러뜨린다, 돈 갈취

3.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수많은 부자 목사들, 미국의 대다수 목사: 연봉 5000만원

케네스 코플랜드: 7억 6천만 달러(7600억), 팻 로버트슨(1000억), 베니힌(420억), 조엘 오스틴(400억), 빌리 그래함(250억), 릭 워렌(250억), 조이스 메이어(80억), 우리나라 5000억 횡령 목사들의 한 끼 식사, 옷, 구두, 차 등이 도를 넘으면 안 된다.

4. 수치스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성도들/목사들의 간음/음행

5. 영적이라는 말에 조심해야 한다: 비상식적, 비논리적, 불합리, 비실제적, 신비주의, 꿈, 기도를 길게 이상한 어조로, 아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 똑똑한 것, 지혜로운 것, 상식적인 것을 말한다. 즉 땅의 일을 하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너무 영적이라 세상일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끗하게 살며 바르게 결정한다. 잔피를 부리지 않는다.

6.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다(마7:21-23)

성도의 신분과 위치

1.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다(엡2:4-6). 다른 성경은 시민권이라고 하였다. KJB는 조금 더 리얼하게 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빌4:3). 이것은 마치 아이를 낳으면 그 나라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여권을 받아 땅에 와서 살고 있다. 하늘의 시민, 여행 중에 있다. 여행 중에 잘못 행동하면 본국의 명예에 누를 끼친다.

2.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늘에 속하므로 자연히 하늘의 말이 나와야 한다.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간다. 한국말을 한다.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마12:34-37).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교회를 세우는 일, 서로 세워 주는 일, 그러므로 자연히 영적인 것을 말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하루 종일 성경 말씀만 암송하고 만나면 그것만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다워야 한다. 로봇이 아니다. 그 말이 하늘의 방식으로 나와야 한다(엡4:29; 골4:6).

3. 하늘의 법칙을 따른다(17).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여행간다. 두 나라 법을 다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행20:35), 섬겨야 한다(막10:42-45; 요13).

그런데 18-19절의 사람들은 땅의 규칙대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땅에서도 세상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벧전2:11-20)

4.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며 산다. 우리는 십자가의 백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 주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심을 가장 잘 보여 주는 행위: 자기 아들을 죽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신다.

십자가는 구약을 끝냈다: 다 이루었다(요19:30), 구약의 제사장 체계 종식,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이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구약의 희생예물, 제사장, 외적인 것으로 나가려는 것, 영원한 단번 속죄(히10:11-14)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음(골2:11-12)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중간 분리벽이 무너짐. 이것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다.

5. 하늘의 시민들은 하늘에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

땅의 사람들,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다시 구약으로 가게 한다. 과거로 가게 한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들은 미래를 보며 산다(20-21).

지금 우리는 땅에서 외계인으로 살고 있다.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산 사람들이다.

아브라함(히11:13-16), 모세(11:24-26)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다(히12:2).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요일2:28-3:3).

우리 육신에 갇혀 고통받는 것을 벗어나는 때가 있다(롬7:24).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의 몸을 갖는다. 여기서 조금만 정신 줄 놓으면 죄, 죄, 죄 왜 그런가? 우리 몸이 천한 몸이다(21).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몸이다. 즉 지금은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몸이 변화되어 모든 생각 언행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된다.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전15:42-53)

이때에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복종한다.

창조 세상이 다 변한다(롬8:18-21).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의 질서를 회복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

마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이 생김

결론

우리를 살피야 한다.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견고 있지는 않는가?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 구약 체계, 자기 방식대로 견고 교회 운영
우리는 하늘 사람의 언행을 하는가?

주님을 기다리는가?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대인가?